

# 초보자가 덤벼들었던 '훈민정음운해' 주석

## 번역과 주해로 깨달아간 국어학의 세계

강신항

성균관대 명예교수 · 국어학

1959년 여름 어느날 당시 석사과정 수료생이었던 나에게 일석 이희승 선생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강군이 여암 신경준(旅菴 申景濬, 1712~1781) 선생의 《훈민정음운해(韻解)》(영조 26, 1750)를 번역하고 주를 달아보지 않겠나?”

스승님 말씀을 하늘처럼 여기고 있던 나로서는 조선조 500년 동안에 유희(柳愷, 1773~1837)의 《언문지(諺文志)》(순조 24, 1824)와 함께 훈민정음 다음으로 크게 인정을 받고 있던 《훈민정음운해》를 검토해보라는 말씀에, 오직 송구스럽고 감격할 따름이었다.

### 역학과 운도의 공부부터 시작

일석 선생께서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은, 1958년에 내가 《훈민정음운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조중기 국어학사 시론>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 논문을 쓸 때에는 《훈민정음운해》를 정밀히 분석하기는 했으나 번역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편이 달랐다. 한문으로 된 이 책의 전문(全文)을 번역하고 주해를 하려면 《훈민정음운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또 한번 차분히 검토해야만 했다.

그래서 대학도서관에 다시 가서 한 권밖에 없었던 깨끗한 사본(원본은 현재 숭실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을 찬찬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시절에는 복사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며칠씩 가서 베꼈다. 이러한 나의 처지를 딱하게 여겼던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도서관 담당직원이 집에 가지고 가서 보라고 권하였다.

“이 사본이 이것 말고 또 있나요?”

“없는데요”

“그러면 유일본(唯一本)인데 내가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혹시 분실이라도 하게 되는 날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고생스럽더라도 날마다 와서 베끼겠소.”

그러다가 어느날 1938년에 조선어학회에서 활자본으로 인쇄한 책을 우연히 관훈동 통문관에서 구할 수가 있어서 도서관에 더 안가도 괜찮았다.

《훈민정음운해》는 그동안 여러 논저에서 단편적으로 인용했던 학설과는 달리, 훈민정음이나 국어에 관한 기술은 아주 적고, 중국 운학(韻學)이나 한자음, 그리고 역(易)에 관한 내용이 많은 저술이다. 특히 책이름도 그동안 《훈민정음운해》보다는 《훈민정음도해(圖解)》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왔었는데 총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니, ‘운해’ 또는 ‘운해

책을 읽다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노라면 불현듯 화가 치민다. 미증유의 전란 속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던 시기에 기초를 닦았더라면 《훈민정음운해》를 번역하고 주해하는 데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소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훈민정음’이라고 해야만 옳을 것 같았다. 더군다나 내용에는 중국음운학에서 난해하다는 운도(韻圖)에 관한 것이 많아서 무엇보다 역학(易學)과 운도에 관한 공부부터 시작해야만 했다.

또 이 책의 첫머리에는 ‘경세성음수도(經世聲音數圖)’가 실려 있어서, 이 도표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우선 알아보아야만 했다. 유희의 《언문지》는 유창돈(劉昌惇, 1918~1966) 선생께서 1958년 9월에 이미 주해를 내었으나 두 책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저술이었으므로, 《훈민정음운해》의 주해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였다.

‘경세성음수도’는 송나라 학자 소용(邵雍, 1011~1077)의 ‘황극경세성음도(皇極經世成音圖)’를 본보기로 하여 여암이 만든 일종의 운도다. 그래서 ‘황극경세성음도’가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찾아보니, 명나라 초기에 편찬된 《성리대전(性理大全)》에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리대전》은 1415년에, 송나라 때의 모든 학자의 학설을 집대성한 일종의 총서로서, 1419년(조선조 세종 원년)에는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 왔었다. 즉 세종 원년 8월 25일에 사은사(謝恩使)로서 명에 갔던 경녕군(敬寧君) 등이 같은 해 12월에 북경에서 귀국할 때, 명나라 황제가 선물로 주어서 받아가지고 온 것이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자, 학문을 좋아했던 세종은 이 책의 내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집현전 학사들에게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도록 명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찍어내어 세종 17년경에는 전국의 여러 향교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나중에 지방으로 답사를 다녀보니 오래된 고가(古家) 사랑방 시렁에는 《성리대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리대전》에는 태극도(太極圖), 태극도설(太極圖說), 역학계몽(易學啓蒙), 율려신서(律呂新書) 등 송나라 학자들의 학설이 70권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고, 소용이 지은 《황극경세서》는 《성리대전》의 권 7부터 권 12까지에 걸쳐서 수록되어 있으며, 그의 ‘황극경세성음도’(‘황극경세성음창화도’라고도 함)는 ‘십정성 십이정음(十正聲 十二正音)’이라는 이름으로 《성리대전》 권 8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70권으로 되어 있는 성리대전을 전부 구입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대에 나온 여러 저술들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장 참고할 필요가 없더라도 《성리대전》 70권 한 질을 전부 구입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판본에는 간혹 오각(誤刻)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판본은 70년대에 영인출판되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통문관에 들르니 다행히 70권 32책으로 된 중국판 《성리대전》이 있었다. 첫번째 책은 붓글씨로 보완한 것이어서 출판연대와 출판지 등을 알 수 없는 것이 유감이었으나, 사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책을 구할 수가 있어서 마음은 매우 흐뭇했다.

그런데 《성리대전》을 대충 넘겨 보니

어디서 본 듯한 구절이 자주 눈에 띄었다. 세종은 새로운 표음문자인 훈민정음을 1443년(세종 25)에 창제하자마자 집현전 학사들에게 이 새 글자에 대한 해설서를 편찬케 하였다. 이 해설서는 한문으로 씌어졌으며 1446년(세종 28) 9월에 완성되었는데 책 이름이 새 글자와 똑같이 《훈민정음》이었으므로, 오늘날에는 ‘훈민정음원본’이라고도 하고 또는 해례가 붙어 있다고 해서 ‘훈민정음해례본’이라고도 하거니와 내용은 순수한 문자학과 음운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새 글자에 대한 해설서이므로 새 글자를 만든 원리, 음가와 사용법 등이 기술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 이상의 내용이 역학과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바탕을 둔 설명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성리대전》의 첫머리에 송나라 때 발달된 이론철학의 개시자로 인정받고 있는 주돈이(周敦頤, 호는 濂溪, 1017~1072)의 저술인 《태극도》와 《태극도설》이 실려 있고, 그밖에도 이와 비슷한 학설들이 《성리대전》 안에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이러한 학설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세종은 새 글자 창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한자음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국정운(東國正韻)》(1447)을 편찬시켰는데, 이 책의 서문을 쓴 신숙주(申叔舟)의 글에도, 송나라 학자들이 쓴 ‘황극경세성음도’ 주해 부분에서 따온 구절들이 있다.

### 중국 음운학도 이해

이상에서 간단히 밝힌 바와 같이, 《성리대전》은 세종시대의 어문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훈민정음은 어디까지나 그 시절의 언어학이었던 중국음운학 이론에 바탕을 두고 창제된 것이므로, 중국 음운학에 대한 공부가 무엇보다도 시급했다. 또 일종의 운도인 《훈민정음운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국음운학에 대한 공부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기부터 1960년대에 걸쳐서 중국음운학에 관한 서적은 국내에서 구해 보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음운학자 Karlgren(중국 이름 高本漢)의 몇가지 저술도 대학도서관에

# 삶의 불안 반영하는 참언의 문화

《바이블 코드》를 읽고

정진홍 ·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가보면 언제나 '대출'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구해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1970년 1월에 이르러서야 겨우 대북시 소재 '중화민국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도착한 다음날 연구소의 도서관 열람실에 가보니 Bernhard Karlgren의 저서를 조원임·이방계·나상배씨가 중국어로 번역한 《중국음운학연구》(1940년 초판, 731p)가 서가에 꽂혀 있었다. 이를 발견하자마자 몇 달 동안 날마다 도서관에 나가서 열람을 계속하였다. 워낙 기초가 약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원저자의 뜻을 대강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벌써 40을 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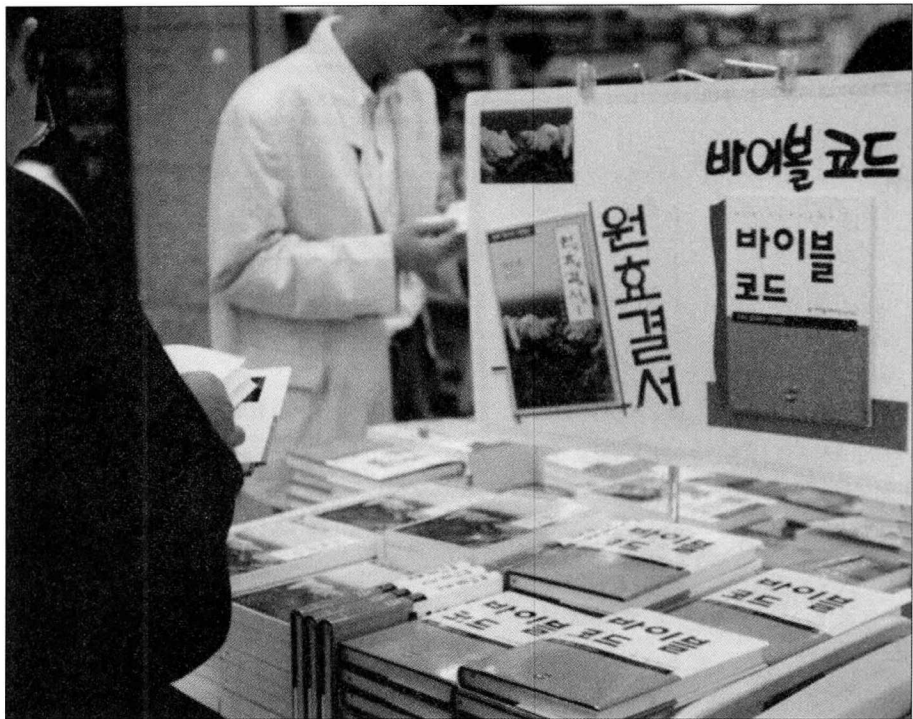
책을 읽고 있다가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불현듯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한없이 뉘우쳐지기도 했다.

나에게 이러한 기회가 좀더 일찍 있었더라면, 특히 20대에 이와 같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하니, 한창 공부에 열중했어야 될 20대에 미증유의 전란 속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치던 나 자신과 우리 겨레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리고 일찍이 기초를 닦을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분량이 많지도 않은 《훈민정음운해》를 번역하고 주해하는 데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소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일반 언어학 공부를 그 시간만큼 소홀히 한 것을 안타까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

**비록 종교의 경전들이 초월과 신비에 근거한 신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결같이 인간이 현실의 의미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밝히는 지혜와 진리의 보고들이다. 그것은 '풀어 읽어야 할 비밀부호'가 아니라 의미를 터득해야 하는 상징이 담긴 책이다. 《바이블 코드》는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책 중에서 대표적이다.**

《바이블 코드》는 경전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우리의 미래와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



사람은 끊임없이 미지의 시간과 부닥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욕망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한다.

삶이 미리 정해져 있으리라는 기계론적 숙명관이 그 하나이고, 만약 알 수 있다면 그것을 고쳐 스스로 바라는 미래가 펼쳐지도록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신념이 또 다른 하나이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역설적이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앎은 미래에 대한 수정을 거부한다. 동시에 미래에 대한 수정가능성이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러한 역설적인 전제 속에서 미래를 알아 그에 대처하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참언(讖言)이 출현한다. 참언의 문화는 근원적으로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의 반영이다.

삶이 빛는 불안에 대응하는 이러한 태도는 사물을 온통 미래를 예시하는 징표로 읽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특히 자연스럽지 않은 자연을 그렇게 읽는다. 일식 또는 월식, 여름의 우박이나 겨울에 피는 꽃, 누른 소가 흰 송아지를 낳는 일, 강물이 핏물로 변한 일 등을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조짐으로 읽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더 나아

가 인간이 쌓은 문화적 유산조차 미래를 예시하는 기호(code)로 바꾼다. 많은 경우 종교의 경전들이 그렇게 읽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건강하지 못하다. 인간이 미지의 미래를 살아가는 불안한 존재인 것만을 틀림없지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책임 주체이기도 하다.

비록 종교의 경전들이 초월과 신비에 근거한 많은 신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결같이 인간이 지금 이곳의 현실에 얽매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현실의 의미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지혜와 진리의 보고들이다. 그것은 결코 펼쳐질 미래를 숨겨 두고 있는 '풀어 읽어야 할 비밀부호의 책'이 아니다. 그것은 기호의 집적이 아니라 의미를 터득해야 하는 상징이 담긴 책이다.

이 책 《바이블 코드》(황금가지)는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책 중에서 대표적이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치장하고 정치적 사건을 예거하면서 시오니즘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 책은 경전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우리의 미래와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 경전이란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고대 히브리어가 모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니열된 자음을 어떤 식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상식만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전개하는 이른바 수학적인 설명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작업인가를 단번에 알 수 있다.

이러한 책이 가장 잘 팔리는 책이 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어쩌면 참으로 하릴없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책에 몰두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 사회에 성숙하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삶을 주체하지 못하는 딱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오늘 우리 시대의 무력한 종교가 일차적으로 져야 할 일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적 상상력을 빈곤하게 하고 있는 산문적 기호문화에 대한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를 비롯한 지적 풍토가 현실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해야 옳을 듯하다. ❖